<보기>는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이다. 윗글을 참고할 때, ㉮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**학생:** 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, ‘책임의 소재’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.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, 자유 의지는 없는 인공 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(AI-TCS)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 보죠.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.

**플로리디:** 칸트에 따르면 자유 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.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. 이처럼 정보화 사회 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,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.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 로서의 인간을 나는 ‘호모포이에티쿠스’라 부릅니다.

**학생:** 선생님께서는 ㉮ 보시는군요.

① AI-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,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

② 칸트와는 대조적으로,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 자인 AI-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

③ AI-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 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

④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-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고

⑤ AI-TCS와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가꿔 나가는 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